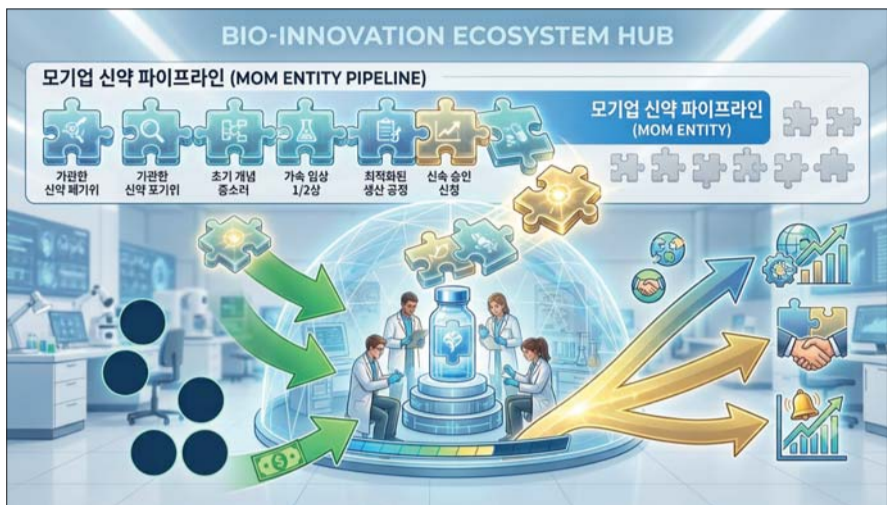


임상비용 덜고 속도 높이고... K-바이오, 뉴코 전략 확산

뉴코, VC 등 투자자금 받아 설립
기술 사장되는 '셀빙' 위험 줄여
기술이전·기업가치 상승 효과



신 성장전략 '뉴코' /제미니 생성 이미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체 파이프라인을 무기로 '뉴코'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긴 개발 기간, 막대한 임상 비용 등 신약개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일환이다.

6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독립 리서치 기업 그로스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바이오 산업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 기술이전 상대방이 전통적 비파마에서 뉴코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뉴코는 특정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설립된다. 핵심 자산에만 역량을 집중해 임상적 개념증명(PoC)을 빠르게 확보하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는다.

뉴코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발 속도'다. 자원을 특정 자산에 몰아주는 가운데, 설

립 초기부터 규제 전문가, 임상시험수탁기관 등과 협력해 임상 설계, 생산, 계약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용희 그로스리서치 연구원은 "뉴코와의 기술이전은 임상 개발 비용을 외부화하고 병렬 개발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입 자산이 내부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는 이른바 '셀빙(Shelving) 리스크'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파마 중심 기술이전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자파이프라인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뉴코 모델을 통해 물질 가치를 조기에 극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 성공 사례는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과 항체 전문기업 맵티스가 합작한 뉴코다.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비상장 바이오텍 '메네토 메디신'은 9300만 달러(약 1423억원) 규모의 대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큐라클과

맵티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망막질환 치료제 'MMT-205'의 전 세계 권리를 독점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입했다.

이번에 조달한 대규모 자금은 MMT-205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위한 비임상 연구에 투입되며 오는 2027년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한다.

큐라클 측은 "메네토 메디신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글로벌 VC들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MMT-205 임상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과 인프라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코 설립은 신생 바이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대표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뉴코' 중심의 연구개발 변화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주력 파이프라인과 지식재산권을 신규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외부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의 대규모 임상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뉴코가 확보한 자금으로 신약개발과 가치 창출에만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차세대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YH35324)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해 있고 향후 후속 임상과 함께 뉴코 모델을 접목해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웅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 한올바이오파마도 뉴코 기반 협업을 강화해 왔다.

2017년 미국 뉴코 설립 및 신약개발 전문 투자사 로이반트에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L161(IMVT-1401)'을 최대 55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이후 로이반트는 2018년 뉴코 이뮤노반트를 설립해 해당 물질 개발 권리를 승계시켰다. 현재 이뮤노반트는 2세대 물질 'IMVT-1402'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원개발사인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자본이라는 속제가 풀리면 임상 가속화와 국내 기업 가치가 또 다른 전화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올리브영, 제주 전역 '오늘드림' 시대 연다

도심형 물류센터 'MFC제주' 구축
제주 지역 온라인 주문 90% 처리

CJ올리브영이 제주 지역에서 물류 체계를 강화하며 비수도권 쇼핑 환경을 고도화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제주 애월읍에 515평 규모의 도심형 물류센터(MFC)인 'MFC제주'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FC제주를 통해 올리브영은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올리브영의 오늘드림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편리한 쇼핑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다만 제주 지역의 경우, 높은 수요에도 물류 시설 한계로 연간 이용 건수가 15만 건 수준에 그쳐 있었다. 또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인근 권역에만 당일 배송이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MFC제주가 제주 지역 온라인 주문의 90%를 맡는다. 오후 4시 이전 오늘드림 주문 시 별도의 도서산간비 없



올리브영 제주 지역 오늘드림 대표 이미지.

이 당일 자정 전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재고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취급 상품 수 역시 1만 1000종으로 다양해진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모바일 앱 내 제주도 맞춤형 '제주오늘드림'도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도민들은 해당 탭에 방문해 오늘드림 가능 상품과 제주 인기 상품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쇼핑하면 된다.

올리브영은 향후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제주 전역에서 오늘드림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취급 상품 수도 1만 60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을 찾는 제주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특화 매장 개점, 관광 지원 등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인벤티지랩, mRNA-LNP 대량생산 국산화

9일 국제학회서 성과 발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mRNA 활용 기술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mRNA를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핵심체인 LNP(지질나노입자)의 대량생산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며 연구실 수준에서 개발된 제조 기술을 상업 생산 단계까지 공정 변경 없이 그대로 확장하는 길을 열었다.

인벤티지랩은 오는 9일(현지 시간)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약물전달 분야 국제학회 'CRS 2026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서 자체 개발한 IVL-GeneFluidic 플랫폼 기반의 'mRNA-LNP' 대량생산 기술 연구성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IVL-GeneFluidic 플랫폼과 이를 이용한 제조시스템 핸디진 시리즈를 활용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업생산 단계까지 스케일업 이슈 없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LNP(지질나노입자) 기반 '핵산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IVL-GeneFluidic 플랫폼은 인벤티지랩이 개발한 차세대 핵산의약품 생산 플랫폼이다

미세유체 기술을 기반으로 LNP를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제조 조건을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과 상업화에 응용할 수 있다. mRNA 백신뿐 아니라 차세대 핵산의약품과 다양한 RNA 기반 치료제 개발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청하 기자

HLB생명과학R&D, 경북 헴프 특구 참여

미량 칸나비노이드 신약개발

HLB생명과학R&D가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원료의약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HLB생명과학R&D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다섯 번째 국책 과제 참여다.

이번 특구 사업에는 4년간 총 296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헴프 재배, 원료 생산, 비임상 연구, 사업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산업용 헴프 실증 범위를 기존 칸나비디올(CBD)

에서 칸나비게롤(CBG), 칸나비크로몬(CBC), 칸나비놀(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량 칸나비노이드는 비항정신성 성분으로 대마에 극미량 존재한다. 항염, 신경보호, 면역조절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의료용 헴프 기반 신약 개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HLB생명과학R&D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임상 단계에서 세포 및 동물 효능평가, 약동·약력학(PK/PD) 분석,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해 임상 진입이 가능한 신약 후보물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청하 기자

한국P&G-런드리고 다우니 향 경험 확대

한국패션지가 다양한 세탁환경에서 다우니만의 고급 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패션지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플랫폼 런드리고와 협업해 '다우니'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탁 서비스와 섬유유연제 브랜드를 결합한 것으로 런드리고는 자사 서비스 '생활빨래'와 '이탈빨래'에 다우니 5성급 호텔 컬렉션 섬유유연제 화이트 티를 사용한다. 런드리고 '생활빨래'와 '이탈빨래' 이용 고객은 문 앞까지 배송된 의류와 침구를 통해 편리하게 다우니 화이트 티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국제학술지 '혁신 선도기업' 선정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 발표

한미약품이 토종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R&D)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가 발표한 아시아 등 신흥국 제약바이오 기업 분석에서 글로벌 '혁신 선도 기업' 그룹에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매출 5억 달러 이상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임상 파이프라인 구성,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혁신 역량과 연구개발 생산성을 평가한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비중 등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 기업 ▲신흥 기업 ▲제네릭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은 혁신 신약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과 높은 연구개발 생산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혁신 선도기업 그룹에 분류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매출의 약 1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파이프라인 구축, 글로벌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냈다. 또 대사질환과 희귀질환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차세대 질환 영역에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해당 분석을 게재한 논문 저자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혁신 선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매년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 독자 플랫폼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